

장성 양대체전 3만4000명 몰려온다

18~21일 4일간 전남체전

30일~5월2일 장애인체전

‘장성 방문의 달’ 방문객 유치 총력

장성군에서 최초로 열리는 전남체전, 전남장애인체전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장성군은 양대 체전 기간 장성을 찾는 선수단과 관광객 규모가 3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64회 전남체전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육상, 축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궁도, 태권도, 배드민턴, 복싱, 유도, 볼링, 수영, 사이클, 검도, 사격, 골프, 바둑, 역도, 농

구, 당구, 족구 총 23개 종목이 경기를 갖는다. 첫 경기는 종목의 특성상 하루 전인 17일에 열리는 골프(푸른솔GC)다. 대회 마지막 일정은 21일 오후 1시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축구 결승전이다.

제33회 전남장애인체전은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된다.

30일 오후 1시 문향고등학교에서 열리는 당구 시합을 시작으로 게이트볼, 골볼,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수영, 역도, 육상, 조정, 축구, 탁구, 파크골프, 양궁, 승마, 테니스, 펜싱, 단스스포츠, 태권도 총 21개 종목의 시합이 열린다.

양대 체전의 개최로 인한 생활인구 증가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체전 선수단 규모는 7000명, 관람객 수는 1만 5000명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남장애인체전 선수단·관광객까지 합산하면 3만 4000명이 장성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체전 개최에 발맞춰 운영하는 ‘장성 방문의 해’ 관광 프로젝트도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장성군은 4-5월을 ‘장성 방문의 달’로 정하고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진행 하고있다. 장성지역 음식점, 커피숍, 숙박업소를 이용한 뒤 장성역 여행자 플랫폼에 들러 인증하면 2만원에서 7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체전에 이어 다음 달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까지 열리면 더욱 많은 인원의 방문이 예상된다”라며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 경관개선사업 진행

2026년까지 22억원 투입

강진군은 ‘마도진 만호성지’ 일대가 전남도 지정 유산 경관개선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만호성지는 강진군 대구면에서 마량면으로 가는 길 끝자락에 있는 마량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조선시대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연산군 5년(1499년)에 쌓은 수군진성으로 종4품의 무관직인 만호가 배치된 조선시대 석성이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둘레가 890자, 높이 12척이고 웅성이 2개, 치성이 4개라고 기록돼 있다. 이를 현대 수치로 복원하면 길이는 약 730m, 높이는 5.6m, 성내 면적은 4237㎡이다.

만호성지 경관개선사업에는 올해 7500만원이 투입돼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경관개선 사업에 착수한다.

지정유산 경관조형, 편의시설 정비, 종합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진입로 정비, 선정비 보호시설 정비, 배수로 및 잡목제거 사업이 진행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돼 살아 숨쉬는 도지정 유산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만호성지가 정비돼 매력적인 관광자원은 물론 새로운 마량의 관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임대농기계 무료 세척해 드립니다”...함평군 세차장 개장

고압 세척기 등 최신 시설 갖춰

함평군이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기계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농기계 전용 세차장을 새롭게 개장했다.

함평군은 농기계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신 세척시설을 갖춘 임대농기계 세차장이 지난 4일 개장식을 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의 기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임대농기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장시간 사용에 따른 흙먼지와 오염물이 쌓여 기계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기적인 세척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농업인이 부담 없이 농기계를 관리하고 편안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압 세척기를 비롯한 최신 세척 시설을 갖춘 전용 세차장을 마련했다. 해당 세차장은 무료로 개방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농기계 세척과 유지관리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직결되는 필수 요



함평 임대농기계 셀프 세차장.

소”라며 “새롭게 개장한 세차장이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지역 먹거리 명소화 ‘나주밥상’ 지정업소 발굴

2023년부터 시행 36곳 선정

18일까지 올 지정업소 10곳 신청

나주시가 우수한 맛과 위생, 착한 서비스와 가격으로 먹거리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2025년 ‘나주밥상’ 지정업소를 모집한다.

나주밥상 지정업소는 ‘건강·안심·배려’ 3대 실천 서약을 통해 지역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관내 외식 업소를 의미한다. 민선 8기 공약사항

이자 먹거리 명소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발굴해 지난 2023년부터 외식업소 36곳을 선정했다.

나주밥상 지정업소는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인증’, ‘지역 식재료(로컬푸드) 우선 사용’, ‘덜어먹기’, ‘수저 등 위생관리’, ‘남은 음식 폐기’, ‘입식 테이블화’, ‘정결한 주방·화장실 문화’, ‘종사자 친절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실천한다.

시는 업소에 지정현판, 음식문화개선 실천 물품, 경영마인드· 친절서비스 교육, 맛집 지도제작,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 노후화된 주방, 화장실 보수, 입식 테이블 설치 등 시설개선 보조사업도 함께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은 18일까지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음식문화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위생시설 서비스 등 현장평가, 3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음식의 맛·위생·서비스·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10여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정책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모집해 현장평가 의견을 반영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5월30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담양군이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담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복지 향상 ▲일상생활 불편 해소 ▲취업·일자리 창출 및 기업활동 애로사항 ▲신산업·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주민, 소상공인, 기업 등)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이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2명(각 30만원) ▲장려상 4명(각 20만원)을 선정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민과 기업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라며 “담양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군,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96억원 지원

장흥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96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흥군은 94개 농가를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확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오는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사료 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한·육우 264개 농가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축산과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사료비 부담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상환유예조치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채본부장 kykim@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4월호

2025년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 70주년

- 1956년 창설, 60만 명의 꿈 키워온 예술 대제전
- ‘글로벌 스타’ 활약 호남예술제 수상자들
- 화보로 만나는 호남예술제 70년사

호남 예술제

꽃피는섬 예술만발 섬티아고

공간의 재발견② 어뵤서어 군영서어

대학자 고봉의 서원 선비정신, 전통문화 배움터로 변신

예향 초대석

식물 참모습 그리는 식물학 일러스트레이터 이소영

“결에 있는 식물과 더불어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⑧

따뜻한 봄날 당일치기 섬 여행

우리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④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유럽 소도시 기행① ‘진짜’를 만나는 즐거움, 독일 본 Bonn

기획-구례 레포츠크 광장

기러기와 나랑히, 스카이런

섬진강을 발아래, 스카이 바이크

문화계 화제

예술 놀이터 만드는 기업들 ‘뿔뿔의 미술관’